

작별하지 않는 다크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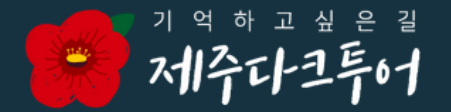
죽은 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한 마중물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제주다크투어 Jeju Dark Tours



- **여행** 속에서 4·3을 비롯한 제주의 역사를 알리고 기억을 공유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 제주를 찾는 국내외 사람들과 함께 제주 곳곳의 4·3 역사현장을 방문하고 기록하며 알려나가는 활동 해옴. 국경을 넘어 세계 과거사 피해자들과도 연대하고자 함.
- 2018년부터 3년간 아름다운재단의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받아 자리잡음.
-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후원회원들의 기부금,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

✓ 홈페이지: www.jejudarktorus.org

✓ 인스타그램: @jejudarktours

✓ 이메일: jejudarktour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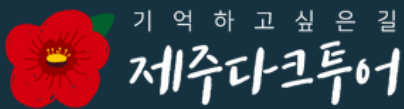
기행사업

#평화기행 #43역사현장 #기억여행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평화기행 참여자 현황



연도	기행 건수	참여자(명)	외국인 참여자(명)
2018	60	1,331	415
2019	62	1,505	251
2020	39	720	20
2021	19	348	0
2022	43	1,157	2
2023	53	1,741	21
2024	54	1,333	73
2025	63	1,587	172

기행사업

- 신청자(단체)의 관심사 및 특성, 숙소 위치, 기행 시간, 규모, 연령대, 경험치,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여행프로그램 기획 및 해설사 배치.
- 일정뿐 아니라 숙소, 교육장소, 전세 버스, 식당 까지 연계하되, 생태적 관점 중점에 둬.
- 생존자와의 만남, 문학 연계, 자연동굴이나 일제 진지갱도와 같이 역사현장 내부로 들어가보는 프로그램까지 제공
-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잊혀지면 안되는 이야기 전달
 - 4·3의 현재진행 중인 이야기(역사왜곡, 혐오, 재심재판, 정명, 가해자 처벌 등)
 - 저항했던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
 - 희생자 외 남겨졌던 또는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
 -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1. 평화기행





기록사업

#43유적지안내판 #43역사현장 #43수형인재심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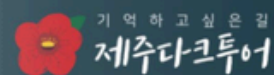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기록사업

- 제주도 곳곳의 4.3 유적지, 역사현장을 방문·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
- 사전조사 > 답사 > SNS게시 > 홈페이지 소개 > 지도 등록
- 이미 조사된 기록들, 현장답사를 통해 역사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

다시 쓰는 제주 100년의 역사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지원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이 프로젝트는 <제주생활탐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록사업

법정동 201호 오늘의 재판안내				
재판부 형사제4부				
기일 2025.07.08 (오후)				
현재 시간 오전 10:56 << 2/4 페이지 >>				
시간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명	상태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성...	대기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인...	대기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양...	대기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중...	대기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남...	대기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규...	대기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중...	대기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동...	대기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병...	대기
14:00	2025재고합1	국가보안	망○○도...	대기

OhmyNews 오마이뉴스

무고한 젊은이들 한꺼번에 사형... 이제야 '무죄'가 되다

[재심재판 방청후기]

23.09.15 11:08 | 최종 업데이트 23.09.15 11:08 | 제주다크투어(jejudarktours)



▲ 제주지방법원

© 제주다크투어

2023년 9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제38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사건번호 2023재고합31)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군법회의 수형인 4·3 피해



기록사업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교육사업

#강독모임 #43은말한다 #토론회 #43유적지시민지킴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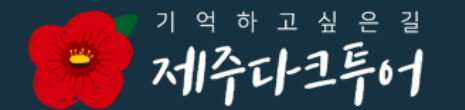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교육사업

- 4.3이 궁금한 시민을 위해 교육·강좌를 진행.
- 코로나19 시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강좌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시민들과 4.3관련 기록 및 문학작품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강독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 시민참여형 사업도 꾸준히 마련.



교육사업



2020 온라인 기획강좌

제주4·3과 한국전쟁

1강 10/08(목)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

한국전쟁 발발 원인과 배경

2강 10/15(목)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미국의 자료

3강 10/20(화)

북한과 소련

4강 10/27(화)

여성의 시각

5강 11/03(화)

공공의 기억

※ 이 강좌는 코로나



주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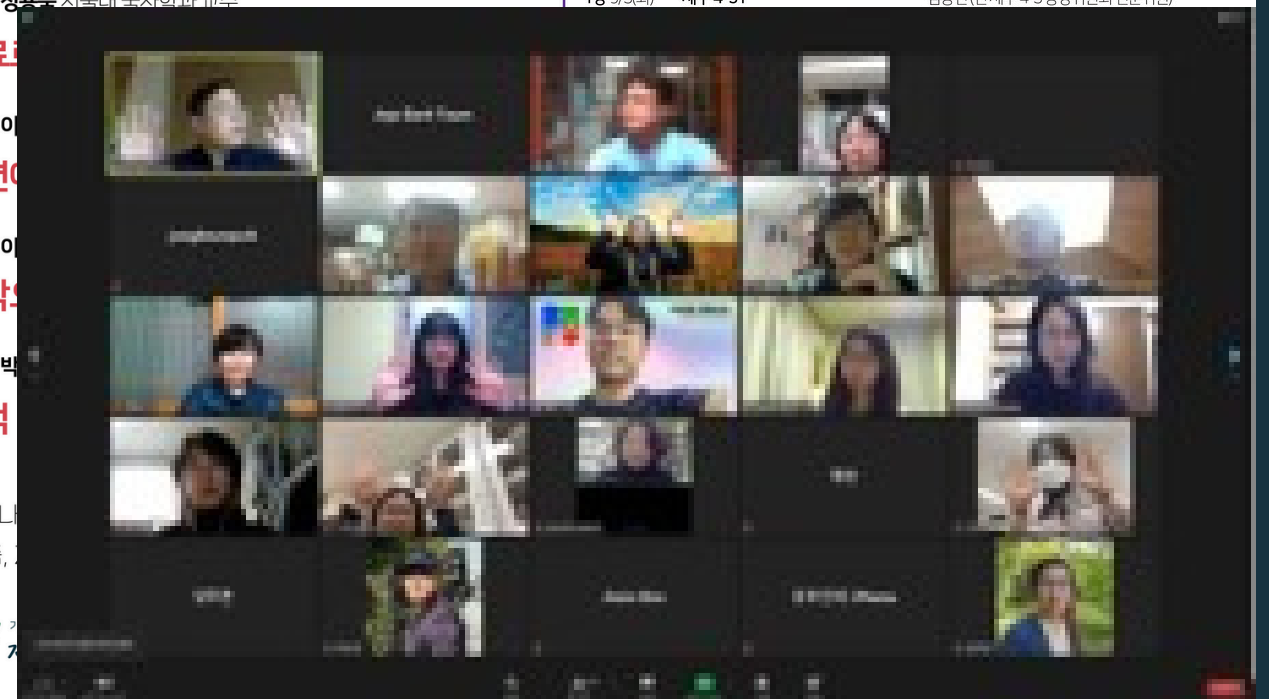
2019 기획강좌

인권, 젠더, 평화의 눈으로 본 제주4·3

제주 4·3은 오래 전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4·3을 기억해야 할까요? 또 다른 제주4·3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청 대상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 기간	7월 24일(수) ~ 8월 18일(일)
모집 인원	참가 등록비 입금 선착순 30명 * 80% 이상 수강자 수료증 지급
참가등록비	3만원 (농협 351-0972-5365-33 제주다크투어)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bit.ly/2019제주인권강좌)
교육 기간	9월 3일(화) ~ 11월 2일(토) 19:00~21:00 * 2, 10강을 제외하고 모두 화요일
교육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
참가 문의	제주다크투어 (064-805-0043 jejudarktours@gmail.com)

1강 9/3(화) 제주 4·31 김중민(전 제주 4·3 중앙위원회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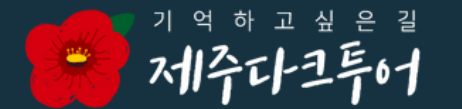
연대사업

#역사의감옥 #과거사 #국제연대 #제2공항반대 #난징대학살추모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연대사업



- 국제사회에 과거사 이슈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여러 단위들에 힘을 보태고자 활동
- 제2공항, 난개발 등 제주도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연대활동에 참여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2월 15일(월) ~ 17일(수) 진행됩니다



사진=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070, 02, 010으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도 받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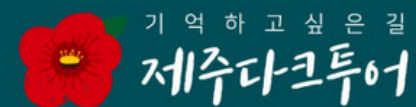
제2공항 **'반대'**로 답해주세요

통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먼저 끊지 말아주세요 🙏



헌재는 내란세력을 비호한
'다크투어 역사현장'이 되려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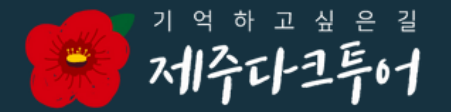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A group of four men standing in front of a wall with the logo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The men are dressed in business attire, including suits and a blazer. The wall behind them features the logo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제주다크투어



- 뿌리는 지역사회에, 가지는 전국/세계로
- 배제된 사람들의 편에서 이야기하기
- 익숙해진 것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만들기
- 정보 접근성 높이기

해심질문

제주다크투어에 제기된 질문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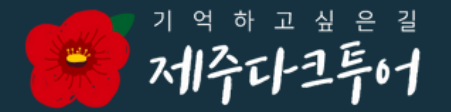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불편한 '다크투어'

- '다크투어(리즘)' : 전쟁, 재난, 역사적 비극 등을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역사적 교훈을 얻고 성찰하는 여행의 한 형태
 - '다크' 희망도, 미래도 없는, 외국어 단체명
 - '투어' 여행사인가, 시민단체인가?
- 대체한다면?
 - 피스투어, 기억투어, 평화기행, 평화순례, 역사교훈여행
 - 이런 고민은 내부로부터 있는가, 외부로부터 있는가?

육지의 한계 극복해야 하는가, 공존해야 하는가



- 육지 출신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단체, 현재도 상근활동가 모두 육지 출신.
- 제주도의 역사 및 현안을 이해하고, 연대하기 위한 노력 매우 중요.
- 반면, 이용자 대부분이 비제주도 사람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주도의 역사를 전달하는 입장에서의 역할도 중요함.

성역화 대 상업화

- 좀 불편해도 예전 그모습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자
 -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성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4.3 역사를 공유하자
 - 단순 관광상품으로 전락하면 안된다.
 - 적어도 학살터에서 V를 하고 사진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
-
-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4.3 역사를 알도록 역사현장을 보존하고, 개선해야 한다.
 - 언제까지 4.3을, 4.3유적지를 소수의 의식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성역화할 것인가?
 - 지역 경제도 살리고, 접근성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 스포츠도 평화다, 어느 정도의 개발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남은 고민들

- 지속가능한 단체 활동
 - 상근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단체 활동의 확대 또는 성장
- 시민 참여형 사업확대
- 정부지원금 없이 독립적 운영.



결론

- 제주4.3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과제가 해결되고 있음.
- 제주4.3과 관련된 학살과 피해, 진상규명의 이야기가 고정된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다른 과거사 간의 위계가 발생하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비극의 재발의 가능성이나 다면적인 역사의 기억을 위한 노력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인지 우려됨.

결론

- 이런 위계와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견뎌야 함. 아직 기록되지 못한 목소리를 찾고, 사라진 공간을 상상하고, 높은 책장에 꽂힌 기록들을 드러내고, 다양한 분야와 조응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함.
- 제주4.3뿐 아니라, 12.3계엄 및 내란을 중단시켰던 시민의 힘과 역사의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답을 찾아가야, 그래야 통일된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70여 년 전의 희생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들이 될 것.



지금 후원하러가기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는
(사)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 홈페이지: www.jejudarktours.org
- ✓ 인스타그램: @jejudarktours
- ✓ 이메일: jejudarktours@gmail.com